

재미와 깊이 아우른 영국의 역사

박지향 지음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를 읽고

김덕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역사학

한국인에게 영국은 아직도 '위대한'(great) 국가이다. 오늘날 영국이 이등국가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ritish Empire', 'British Museum', 'British Library'를 영제국, 영국박물관, 영국도서관이 아닌 대영제국, 대영박물관, 대영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아직도 영국이 세계 제일의 제국이었던 시절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인지, 혹은 사대의식에서 나오는 지평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여간 영국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목받는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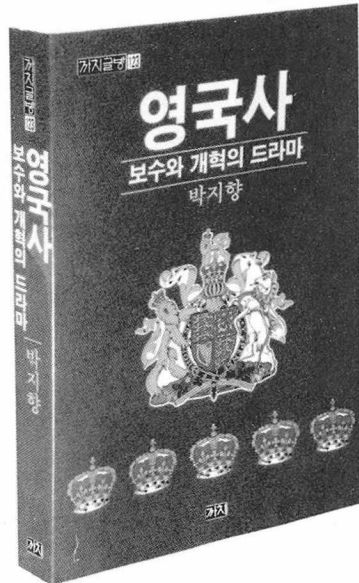
그런데 국내에서 영국사는 앙드레 모로아류의 흥미위주의 책이거나 사학과 및 영문과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서적들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나온 박지향 교수의 《영국사》는 양자의 경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재미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보인다.

책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역사서적의 성격은 양식과 한식으로 나눌 수 있다. 양식은 시차를 두고 전체-본요리-후식의 순서로 먹어야 하는 시간적 음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은 공간적이다. 즉, 한꺼번에 상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음식을 동시에 펼쳐 보여주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먹을 수 있게 해준다.

통사와 주제별 분류사 함께 다뤄

이런 비유로 보자면 통사류의 역사서는 양식에 해당하고, 주제별로 분류된 역사서는 한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서는 성격상 주로 양식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양식과 한식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다. 누구나 입맛에 맞춰 양식을 먹은 다음 한식을 먹거나, 한식을 먹은 다음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양식을 먹는 도중에 한식을 먹거나, 한식을 먹으면서 양식을 먹을 수도 있게 독자의 취향을 최대한 살려주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가 부럽게 생각하는 영국 의회민주주의는 17세기 이래 '의회 안의 왕'(king-in-Parliament)이라는 전통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1부의 2장인 <영국의 통치제도:왕실, 의회, 정당, 내각>을



읽으면서, 2부 4장인 <스튜어트 시대(1603-1714)>를 참조해서 본다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새삼스레 느끼는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서도 이승만 이후 한국의 대통령제는 '왕 안의 의회'(Parliament-in-king)-우리식으로 '대통령 안의 국회'-라는 나쁜 전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평자는, 양식요리에 해당하는 2부부터 읽은 다음 한식인 1부를 통독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인 연대순으로 씌어진 편년체적 영국사를 읽고난 후 여러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 1부를 읽은 셈이다.

2부의 초반부는 고대사와 중세사로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즉, 정치사 위주로 전개되어 있는데 왕실의 음모, 반란 따위의 왕중중심의 지배계급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들어서면 영국의 특성이 드러나는 주제들-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다민족국가체제 확립, 의회민주주의 성립, 양당제, 자본주의 발달, 산업혁명 등-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사만이 아닌 사회경제사 영역까지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평자가 볼 때,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장점은 1부에서 드러난다. 1부는 영국사회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3장은 영국적인 것, 즉 영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민의 형성과정과 영국의 통치제도들-군주정, 의회와 정

당, 그리고 영제국의 흥망성쇠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영국사회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5-6장에서는 영국 계급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성립과 산업혁명의 역사적 산물로서 영국사에 등장하게 된 지주계급, 중간계급, 그리고 노동계급 간의 대립·갈등·타협과정을 다루고 있다.

1부의 마지막 장은 시사성 있는 주제로 현재 영국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화약고로서 북아일랜드 문제, 1980년대 대처수상하의 '영국병' 회복 노력에도 계속되는 경제적 쇠락, 비록 유럽연합(1993년 이전에는 유럽공동체였음)에는 가입해 있지만 영국이 완전한 유럽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유럽 통합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오늘날 왜 세계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주제의 역사 보여주기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첫째로 시대구분의 문제를 명료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즉, 고대와 중세를 1066년 노르만정복을 기준으로 나누고, 중세와 근대를 15세기 후반 튜더왕조의 시작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그러한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좋겠다.

둘째, 1부의 주제별 종류가 모자란 느낌이 든다. 개정시 2부 통사를 줄이고, 1부를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시대별로 보여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족과 여성, 엘리트 및 민중문화, 빈곤과 범죄, 과학과 기술 등도 저자의 역량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영국사에 관한 한 전문인과 일반독자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역량과 저자 나름의 통찰력을 지닌 이 책의 미덕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

까지/A5신/510면/12,000원

저자의 얼굴

“역사란 현재를 의식하는 것”

《영국사》 펴낸 박지향 교수



20세기 전반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의 역사는 단적으로 '보수와 개혁의 역사'라고 박지향 교수(43·서울대 서양사학과)는 말한다. 근대사회의 두 축인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모범적으로 실현된 영국은 이른바 혁명을 거치지 않고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한 나라다. 근대 영국의 진정한 기적은 혁명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혁명을 현실에 동화시켰다는 데 있다. "영국의 지배 엘리트는 '보수를 위한 개혁'이라는 교훈을 받아들인 현명한 현실주의자들이었다"고 박교수는 평한다.

박교수의 책은 '50년 전에 쓴 앙드레 모로아의 《영국사》 번역본밖에 교재라 할 것이 없는 형편이어서' 시작한 통사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학문 연구 외에 외도를 삼갔던 박교수의 20년 연구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책이다.

《영국사》에는 영국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지만 문화사가 빠져 있다. 여성문제와 산업사회 전후 대중문화의 변화양상도 다루고 싶었지만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인물중심의 역사도 다룰 의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박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영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비교'. 동서양의 비교이자 과거와 현재의 비교도 될 흥미로운 주제다. "역사란 과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의식하는 것"이라는 게 박교수의 역사관이다. — 마정미 기자